

중국의 중앙민족공작회의와 민족 정책의 추이*

정재훈**

I. 머리말

II. 장쩌민시기 1·2차 회의(1992, 1999) : '경제 개발'과 '민족 단결'

III. 후진타오시기 3차 회의(2005) : '대국굴기'와 '중화민족'

IV. 시진핑 1기 4차 회의(2014) : '중국몽'과 '중화민족공동체'의 건설

V. 시진핑 2기 5차 회의(2021) : '주최중화민족공동체의식'의 실천

VI. 맺음말

■ 국문초록

덩샤오핑이 제시한 중국 특색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개혁개방의 추진과 관련해 중국은 경제 개발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민족 단결'을 강조했다. 1990년대 초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 이후 어려웠던 장쩌민은 제1차 중앙민족공작회의를 개최해 '민족 단결'을 바탕으로 한 '경제 개발'에 초점을 맞춘 민족 정책을 강력히 추진했다. 이후 건국 50주년을 기념해 1999년 그동안의 성과를 정리하고, 연안과 내지의 경제적 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 사회적 개발을 추진하는 '서부 대개발'과 관련해 제2차 회의를 열었다. 21

* 이 연구는 2023년도 경상국립대학교 발전기금재단 재원으로 수행되었음.

** 경상국립대학교 사학과 교수.

nomad123@gnu.ac.kr.

세기 시작과 함께 테러와의 전쟁이 본격화된 대외적 위기 속에서 후진타오는 경제적 발전 성과를 토대로 중국의 ‘굴기’를 강조하며 2005년 제3차 회의를 열었다. 이것은 위대한 부흥의 주체가 되는 중화민족을 주체로 하는 신세기 중국의 발전 방향에 맞춘 정책 추진이었다. G2로서의 위상을 갖게 된 이후 시진핑은 ‘중국몽’의 구현 즉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성취하기 위한 일대일로 정책을 추진하며 제4차 회의를 열어 ‘중화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정책을 추진했다. 또한 2021년 중국공산당이 100주년을 맞아 새로운 100년의 성공을 지향하며 ‘중화민족공동체 의식을 단단히 녹여 만든다’라는 테제를 바탕으로 제5차 회의를 열었다. 이것은 중국의 새로운 100년 즉 ‘신(발전)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민족 정책의 방향 설정과 연결되었다.

중국에서 개혁개방 이후 5차례에 걸쳐 개최된 민족공작회의는 그동안의 사업 성과를 정리하고 향후 민족 정책의 방향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이런 민족 정책은 민족 단결을 바탕으로 각 민족의 자결과 함께 문화 보존,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발전 즉 현대화를 얘기한 것처럼 보이나, 결국 ‘동화’라는 성격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다. 이를 잘 보여주는 민족공작회의의 내용에 대한 간단한 정리를 통해 중국 민족 정책의 흐름과 성격을 일목요연하게 이해해 그 의미를 다시 확인하고 나아가 이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환기했다.

주제어: 중앙민족공작회의, 민족 단결, 민족 정책, 중화민족공동체, 주외중화민족공동체의식

■ Abstract

The CCP's Central Conferences on Ethnic Work and Changes in Ethnic Minority Policy

Jeong Jaehun

(Department of History, GNU, Korea)

Since China promoted reform and opening up, the Central Conference on Ethnic Work (CCEW) have been held five times. During the Jiang Zemin era, two CCEW were held in 1992 and 1999 to promote strong economic development while emphasizing national unity. In the beginning of 21st century, Hu Jintao held the 3th CCEW in 2005 to emphasize China's rise based on economic development and to realize a Xiaokang society and great rejuvenation of the Chinese people. Xi Jinping, the leader of the status of G2, attempts to advance abroad by promoting the 'Belt and Road Policy' to realize the 'Chinese Dream', that is, the great rejuvenation of the Chinese nation, and at the 4th CCEW in 2014, this was held emphasizing the promotion of policies for the formation of the Chinese national community. Celebrating its 100th anniversary in 2021, the CCP held the 5th CCEW based on the thesis of 'strengthening the consciousness of the Chinese national community', aiming for a new 100 years of success. This was linked to the setting of the direction of ethnic minority policy to move on to a new 100 years, or 'new stage of development,' through its advance into the world. Xi Jinping's efforts to build a 'Chinese national community' were the result of his

ethnic minority policies promoted. However, it shows the limitations that it is difficult to escape from the aspect of assimilation.

As described above, it was confirmed that the CCEW has an important meaning in summarizing the achievements so far and determining the direction of ethnic minority policy in the future. Through a simple summary of this, I could reconfirm its meaning in that I could clearly understand the flow and nature of China's ethnic minority policy, and I want to evoke our interest in it.

Key Words: The CCP's Central Conference on Ethnic Work(CCEW), Ethnic minority policy, National unity, Chinese national community, Building a stronger consciousness of the Chinese national community

I. 머리말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40여 년이 넘는 동안 눈부신 경제적 발전과 함께 G2의 위상을 갖는 등 많은 변화가 겪었다. 특히 2012년에 집권한 시진핑(習近平)은 이른바 ‘신시대(新時代)’라고 과거와 다른 중국의 발전단계로 설정하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이른바 ‘중국몽(中國夢)’을 추진해 큰 성취를 거두었다고 자평했다.¹⁾ 또한 2022년 제20차 당대회를 통해 관례를 깨고 삼 연임을 한 시진핑은 이것이 ‘신시대’의 새로운 국면 전환이며 중국의 미래를 전망하는 출발이라고 했다.²⁾ 이런 나름의 성과는 중국의 경제적 발전이 표면적으로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의 수용이라는 정책 전환처럼 보이기도 하나 ‘사회주의의 건설’을 위해 ‘일관성’을 유지한 결과였다. 또 이것은 덩샤오핑(鄧小平, 1904~1997)이 제시한 ‘중국 특색 사회주의’ 즉 사회주의 현대화가 성공한 결과로, 건국 이후 일시적 부침에도 공산당이 일당 독재를 통해 계속 사회주의 국가의 건설을 지향한 것과 깊게 관련되었다. 그 결과 중국은 2019년에 신중국 탄생 70주년,³⁾ 그리고 2021년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기념해 자신이 그동안 거둔 성과를 크게 자랑했다.⁴⁾

이와 관련된 중국의 ‘일관된’ 정책 중에서 ‘소수민족 정책(민족 정책)’은 그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건국 이래 이른바 ‘하나의 중국’을 견지하고 내적 통합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민족 단결’ 목표의 달성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평가했다. 즉 대내외적 압력 속에서 소수민족의 분열 움직임에 대응하고 내적 안정을 확보함으로써 경제 발전에도 큰 뒷받침을 했다.⁵⁾

1) 공봉진 외, 2014; 케리 브라운, 2019; 장윤미·이종화, 2024.

2) 이희옥 외, 2023.

3) 박범중 외, 2020.

4) 이희옥·백승옥 외, 2021; 박범중 외, 2022; 이시카와 요시히로, 2024.

5) 조정남, 2006; 공봉진, 2010.

이런 중국의 중요 변곡점이었던 개혁개방 이후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 맞춰 계속 추진한 민족 정책에 대해 국내에서도 이른바 ‘동북공정(東北工程)’ 추진과 관련한 역사 왜곡 논란 이후 커진 관심에 따라 개별 시기의 특징을 검토하기도 했으나⁶⁾ 성격 변화에 대한 체계적 접근은 부족했다.⁷⁾ 또한 최근 신장위구르(新疆維吾爾) 내지는 티베트(西藏) 등지의 인권 문제가 국제적 관심을 끌며 민족문제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임에도⁸⁾ 그의 저변에 흐르는 정책 자체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피상적이다. 따라서 이를 심화해 이해하려면 개혁개방 이후 민족 정책의 성격 변화를 ‘맥락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제3세대 지도자인 장쩌민(江澤民, 1926~2022) 집권 이후 최근까지 이른바 ‘중앙민족공작회의(中央民族工作會議: The CCP’s Central Conference on Ethnic Work, 이하에서 민족공작회의(CCEW)로 약칭)’가 중요한 시기 민족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다섯 차례(1992, 1999, 2005, 2014, 2021)나 계속 열린 것은 그의 변화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런 중요함에도 국내에는 이에 관심이 전혀 없어 이를 연결해 정책의 성격 변화를 일목요연하게 다룬 소개도 없다. 또한 개별 회의에서 결정된 민족 정책의 내용과 성격에 관한 정리도 중국에서만 정책적 성취를 자랑하거나 교훈을 교육하려는 입장에서 주로 다루었다.⁹⁾ 이하에서는 민족공작회의의 주요 내용을 ‘계기적’으로 정리해 우리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민족 정책의 성격에 관한 이해와 함께 그 의미를 국내에 환기해 보려고 한다.

6) 동북아역사재단의 민족지구가 위치한 ‘변경’에 관한 연구에서 중국의 민족 정책 변화를 지역적으로 나눠 정리하고 있다(박장배 외, 2014; 박장배 외, 2019a; 박장배 외, 2019b; 박장배 외, 2020).

7) 박광득(2004); 안치영(2008); 이규태·구광범, 2011; 김태식(2012); 주용·이미정(2018).

8) 대런 버일러, 홍명교 (역), 2021; 송재운, 2023; 브루스 J. 딕슨, 2024.

9) 丁龍召(2019); 嚴慶(2021).

II. 장쩌민시기 1, 2차 회의(1992, 1999) : ‘경제 개발’과 ‘민족 단결’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문화 대혁명 시기의 강제 동화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소수민족의 자율성과 전통문화를 보호하는 정책으로 선회하는 방식으로 당면한 내부의 민족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이때는 중국은 과거의 오류를 수정하고 새로운 사회주의 국가 건설과 관련해 민족문제의 해결을 중요하게 인식했다. 이를 위해 민족지구에 대한 경제 지원을 강화해 내지와의 경제적 통합을 목표로 소수민족의 국가 의식을 강화함으로써 민족 이익을 보장하려는 태도를 관철하려고 했다. 이것은 경제적으로 낙후한 민족지구의 균형적 발전이 민족문제의 완화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었다. 이를 위해 비교적 느슨하게 개별 소수민족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동시에 경제적 지원을 해주려고 했다. 문화적으로도 소수민족의 자율을 허용하고 개별 민족의 고유함을 유지하도록 함에 따라 민족지구의 일시적 발전이 나타나기도 했다. 그 결과 인구 정책 등과 같은 지원으로 한족과 동등한 대우를 받거나 오히려 특혜를 받아 소수민족의 인구가 늘어났다.¹⁰⁾

이런 정책이 1980년대 소수민족과 한족의 영원한 다원적 공존을 지향한 것이 아니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장기적으로 소수민족을 한족에 통합하려는 태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고,¹¹⁾ 당시 상황을 들여다보면 한족 문화의 영향이 민족지구에 상당히 침투해 정책 방향이 ‘민족 융합’으로 복귀한 측면도 강했다. 왜냐하면 이 무렵 나타난 표면적 유연성은 당시 ‘경제 발전’이라는 당면한 국가 목표를 달성하려는 ‘유화’ 정책에 불과했기 때문

10) 任一飛·周竟紅, 2003, 317.

11) 박병광(2000), 427.

이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통일을 유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정책적 후퇴를 통해 내적 안정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중국은 여전히 경제적 성과가 적어 민족지구의 발전을 추동하기 어려워 1980년대 문혁의 실패를 빨리 극복하고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려고 했음에도 의도만큼 큰 성과를 얻지 못했다.

1989년 6월 톈안먼(天安門) 사건 이후 대외적인 제재와 함께 1990년대 초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소련의 해체 등과 같은 급작스러운 대외적 상황 변화에 중국은 큰 위기에 봉착했다고 인식했다. 이에 이른바 ‘민족 분열주의’의 경향의 확대가 결국 촉발할 수도 있는 내부의 민족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했다. 당 중앙과 국무원은 새로운 상황을 연구하고 민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작회의의 개최를 제안했고, 리펑(李鵬, 1928~2019) 총리가 이를 받아들이며 ‘중앙민족공작회의’라고 이름을 지었다. 이후 1991년 반년 동안 국무원 19개 부처와 여러 차례 전문적 토의를 통해 회의를 준비한 결과 제1차 회의가 1992년 1월 14일~18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렸다. 회의 주제를 “각 민족의 대단결을 더 강화하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손잡고 앞으로 나아가자(加強各民族的大團結, 爲建設有中國特色的社會主義攜手前進)”라고 설정했다. 이것은 개혁개방의 각 단계에서 민족 사업의 중요한 지도 원칙과 중대한 전략적 주장을 확립하는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함이었다.

장쩌민은 대회 보고를 통해 민족 사업의 장기성, 복잡성,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1990년대 민족 사업의 주요 정책과제의 확정을 강조했다.¹²⁾ 과거처럼 민족 간의 관계만을 문제로 강조하기보다 민족 자체의 발전과 민족 간, 민족과 계급, 국가 간 등의 관계를 민족문제에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또 소수민족과 민족지구의 경제 문화적 발전에 대한 절박한 요구에 맞춰 민족

12) 國家民族事務委員會政策研究室(編), 1994, 244~261.

사업을 잘 진행해 ‘민족 단결’을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고 했다. 이를 위해 그동안의 성과를 확인하고 경험을 요약한 다음 현재 상황을 분석해 1990년대에 추진할 주요한 과제를 확정했다. 이와 관련해 리펑 총리 역시 ‘민족 단결’의 강화가 사회경제적 발전에 대한 모든 정책의 최종 목표임을 다시금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소수민족과 민족지구의 경제와 문화사업 등 발전시키며 공동번영의 축진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1984년 반포된 <민족구역 자치법>을 바탕으로 민족의 번영을 추동하고 민족 관계를 화해시켜 국가 발전과 조국 통일의 기반을 공고하게 만들고자 했다.¹³⁾ 또한 민족지구의 대외 개방을 위해 ‘국경개발 전략’ 역시 강력히 추진했다. 1992년부터 13개의 대외 개방 도시와 241개의 1급 개방 항구를 설정하고 14개 국경의 경제 및 기술 협력 구역을 설정하는 등 민족지구가 있는 변경지역을 개방했다. 이것은 경제 개발을 위한 대외 개방의 본격적 추진이었다.

또한 개혁개방 이후 민족문제의 확대를 원천 봉쇄하고 내적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민족지구에 대한 경제적 각종 특혜와 우대 정책을 실시함과 동시에 실정에 맞춘 정책 역시 강하게 추진했다. 이것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완성의 선결 과제인 ‘경제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여건인 ‘민족 단결’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과 연결되었다. 특히 소련 해체 이후 민족지구 자치에 대한 내부 우려에 대응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민족자치에 기초한 사회주의 민족 관계를 공고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족지구의 경제 발전과 사회 진보를 추진했다. 이에 대해서는 개혁개방의 각 단계에서 민족사업의 가장 중요한 지도 원칙과 중대한 전략적 주장을 확립한 ‘선례’였다는 자체적 긍정적 평가도 있었다.¹⁴⁾

13) 李瑞(2002), 78.

14) 民族團結雜誌社(1993), 4.

이와 달리 당시 경제적 발전이 미흡한 서부 민족지구를 중심으로 실제 민족지구의 발전이 있었는가는 의문이었다. 오히려 경제 개발에 따라 연안 지역의 경제가 크게 발전한 것과 달리 이로부터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해 생겨난 지역적 편차는 1990년대에 이미 심각했다. 이것은 모두 민족자치와 민족지구의 경제적 발전을 바탕으로 한 민족 단결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건이 제대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민족 간 공동번영을 위한 소수민족에 대한 부문별 우대 조치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음도 지적되었다. 그 결과 중국의 경제적 성장과 함께 향후 민족지구의 경제적 발전을 가속할 수 있는 더 적극적 조치가 요구되었다.

이후 장쩌민 집권 2기 중반인 건국 50주년을 앞둔 1999년 국경절 주간(9. 29.~10. 3.)에 제2차 민족공작회의가 ‘전국민족단결진보표창대회’와 함께 베이징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세기를 앞둔 시점에서 신중국의 20세기 민족 정책의 성과를 정리하며 21세기 경제 발전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자 했다. 회의 주제는 “소수민족과 (소수) 민족 지구의 경제 발전과 사회 진보를 가속한다(加快少数民族和民族地区经济发展和社会进步)”로 설정되었다. 이것은 중국 연안 선진지역의 급속한 경제적 발전에 비해 민족지구의 발전이 제대로 되지 못한 문제의 해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것은 정치 문제로서 소수민족과 민족지구의 발전 없이 중국 전체의 현대화도 없다는 요구에 대한 대처와도 깊게 관련되었다.

장쩌민은 각 민족 인민이 함께 호흡하고 운명을 함께 한다는 마음가짐이 각종 어려움과 위험을 이겨내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건설을 추진해 끊임없는 전진을 보증한다고 했다.¹⁵⁾ 이것은 모두 민족사업을 잘 진행해 민족 단결을 발전시키면 조국 통일, 민족 단결, 변방 공고화, 사회 안정, 개혁

15) 江澤民(1999), 14~17.

개방과 현대건설과 같은 당면 목표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민족사업의 가장 주요 임무인 경제건설을 통해 소수민족과 민족지구의 경제적 발전과 사회적 진보를 가속하고, 나아가 소수민족 인민의 생활 수준을 향상해 민족 단결을 강화하려고 했다. 이것은 조국 통일과 사회 안정을 수호하며 평등, 단결, 상호보완의 사회주의적 민족 관계를 공고하게 만들어 각 민족의 공동 발전과 공동번영을 실현하는 방향이었다. 특히 각 지역의 발전 격차를 점차 줄이고 전국 경제의 활성화와 발전을 촉진해 전국 각 민족 인민의 공동번영을 실현하는 민족 단결을 공고히 했다.

이 무렵에 연안 지역 중심의 경제 개발이 두드러지면서 지역 간의 경제적 격차 해소는 민족문제 해결의 중요한 당면 과제였다. 그 결과 민족지구의 현대화가 없으면 중국의 현대화도 없다는 인식에 따라 민족지구의 발전이 단순한 경제 문제만 아니라 정치 문제로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 서부의 소수민족과 민족지구의 발전을 더 가속하기 위해서 이른바 ‘서부 대개발 정책’ 추진을 본격화하려고 했다. 이것은 개발이 민족 관계의 근본적 변화를 불러올 수 있으며, 이런 변화가 서부지역에 혼거하는 소수민족 이익의 실현을 통해 가능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었다.

이런 정책은 개발의 대상이 동부가 아니라 서부에 있는 민족지구라서 서로 간의 이익이 서로 상충하거나 이익 관계의 균형이 무너지면 오히려 민족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었다.¹⁶⁾ 또 중국 전체의 경제적 통합과 맞물리게 되면 원래의 의도와 달리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민족 평등에 기초한 민족 정책의 시행과 소수민족의 이익을 실현하는 공정한 민족지구의 개발이 필수적이었다. 따라서 이후 강력하게 추진한 ‘서부 대개발’은 서부 내륙지역의 경제와 사회 발전이 결국 평등, 단결, 상

16) 허중국(2006), 23; 김남이(2012), 47.

호협조 등을 기반으로 한 민족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어야만 했다.

이를 위해 전제적 조치로서 ‘중국 농촌의 빈곤 완화 및 발전 강령’을 실시하기 위해 민족지구 중에서도 시짱(티베트) 자치구 전체를 그의 핵심 지원 대상으로 설정하고 빈곤 완화 및 개발 지원, 그리고 민족지구의 빠른 빈곤퇴치를 통해 경제를 발전과 인민 생활의 개선 도모했다. 또한 민족지구의 민족자치와 지역 자치를 잘 결합해 민족 단결의 플랫폼 역시 잘 조화시키기 위해 5개 자치구의 특수 보건사업 즉 공중위생 제도와 농촌 보건을 위한 기반 시설, 전문병원 건설, 농촌 합작 의료, 주요 질병 통제 등에 직접적인 투자를 했다. 이것은 모두 민족 단결을 저해할 수 있는 소지가 가장 큰 5개 자치구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통해 그의 위험성을 줄이려는 것이었다.

이런 적극적인 개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경제적 수혜 효과가 미미해 상대적으로 낙후한 민족지구의 잠재적 ‘위협’은 줄어들지 않았다. 이것은 다민족으로 구성된 체제하에서 민족 이익이 모든 민족 구성원 공동의 발전을 통해 함께 누릴 수 있는 혜택과 일치하지 않았던 것과 관련되었다. 또한 민족지구의 특성상 투자한 개발주체나 외부 자본이 이익을 모두 챙겨버리면 민족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도 있었다. 이런 상황은 21세기로 넘어오면서 더욱 심화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더 강력하게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III. 후진타오시기 3차 회의(2005) : ‘대국굴기’와 ‘중화민족’

21세기 후진타오(胡錦濤)가 권력을 장악할 무렵, 2002년 알카에다의 미국에 대한 9.11 공격 이후 ‘테러와의 전쟁’이 본격화되었다. 중국 역시 이에

동참해 내부의 테러 세력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천명했으며, 이와 동시에 ‘민족 단결’을 더 강조 체제를 유지하려고 했다. 이와 함께 경제적 발전의 성과를 바탕으로 21세기 새로운 발전단계를 설정하고 ‘전면적인 샤오강 사회(小康社會) 건설’을 새로운 목표로 제시했다. 이에 2005년 5월 27일~28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3차 민족공작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주제를 “과학적 발전 관점으로 민족사업을 통솔함으로써 민족지구의 화해 발전을 촉진한다(以科學發展觀統領民族工作, 促進民族地區和諧發展)”로 설정했다. 이것은 소수민족과 민족지구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을 가속화하고 전면적 샤오강 사회 건설이라는 웅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결정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

후진타오는 발제를 통해 과학적 발전 이념에 대해 “두 개의 공통의 과학적 함의와 변증법적 관계를 전면적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천명하면서 전국 각 민족 인민의 지혜와 힘을 모아 단결하고 분투해 전면적으로 샤오강 사회를 건설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건설에 결집하며 나아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자”라고 했다.¹⁷⁾ 이런 과학적 발전 개념은 이후 소수민족과 민족지구의 발전을 가속하는 정책의 기본 지침이 되었다. 또한 사회주의 민족 관계에 대해 평등, 단결, 상호협력에 그치지 않고 ‘화해(和諧)’라는 단어를 추가함으로써 신세기 새로운 민족 관계를 규정했다. 게다가 21세기 ‘중화민족의 부흥’ 즉 이른바 ‘굴기(崛起)’를 강조하고, 민족 단결에서 나아가 ‘융합’을 강조하는 민족 정책의 추진 역시 천명했다.

이 시기 각 민족 인민의 ‘대통합’이 깊은 역사적 연원과 광범위한 현실적 기초에 따른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전국 각 민족 인민의 ‘대통합’이 중국의 과거, 현재, 미래에 겪게 될 각종 어려움과 위협의 시련을 이겨내고 끊임없이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담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21세기 즉 ‘신세기

17) 胡錦濤(2005).

(新世紀) 개혁개방의 심화와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중단이 없는 발전에 맞춰 사회 경제구조의 변화와 이해관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각종 사상문화가 서로 격동하는 것이 민족 관계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먼저 대외적으로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 민족적, 종교적 요인의 영향이 늘어난 것에 주목했다. 다양한 민족주의적 사조를 추종하는 무리의 활동이 활성화하면서 일부 국가와 지역에서 일어난 갈등과 테러와 같은 당시 특수 상황을 진단했다. 이것은 민족 분열 세력, 종교적 극단 세력, 폭력적 테러 세력 등이 주변 일부 지역에서 크게 준동하며 중국을 파괴한다는 상황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중국은 이를 빌미로 민족지구의 불온한 움직임에 강력하게 대응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새롭게 설정된 각 민족 인민의 ‘대단결’을 끊임없이 단단하게 만들어 전면적 ‘샤오캉 사회’를 건설함으로써 ‘중화 민족(中華民族)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목표 성취를 위함이었다.

이에 맞춰 소수민족과 민족지구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가속하는 것이 국가 발전의 최우선 과제이며 중국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임을 강조했다. 구체적인 정책으로 첫째, ‘민족사업을 더욱 강화하고 소수민족과 민족지구의 경제 사회적 발전을 가속하기 위한 결정’, 둘째, ‘중화인민공화국 민족구역 자치법 시행을 위한 몇 가지 규정’, 셋째, ‘인구가 적은 민족 발전 계획(2005~2010)’을 심의·조직하고, ‘소수민족 사업 계획’과 ‘흥변부민(興邊富民) 행동 계획’ 등을 11차 5개년 계획으로 확정했다. 이 정책을 역사적 돌파구로 삼아 적극적인 추진을 강조했고, 이것은 12차와 13차 5개년 계획으로도 이어졌다. 그만큼 ‘중화민족’ 형성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민족지구의 사회경제적 발전의 달성은 신세기 민족 정책의 절대적 명제였다.

회의 이후 당 중앙은 민족문제에 관한 당의 기본이론과 정책을 12개조로 요약해 발표했다.¹⁸⁾ 이것은 21세기 새로운 민족 정책의 성격과 함께

18) 2005년 당 중앙에서 민족문제에 관한 당의 기본이론과 정책을 12개조로 요약했는

향후 이를 추진 방향을 잘 보여주었다. 먼저 민족 형성의 원칙을 설명하면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새로운 단계 진입을 통해서만 ‘중화민족’의 변영이 가능하다고 전제했다. 이런 중화민족을 형성하는 민족 관계의 본원적 특징에 따라 민족 간의 평등, 단결, 공조, 화해 등을 설정하고 공동변영과 발전의 조건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각 민족 문화를 보호하고 교류를 강화함으로써 내적 분열 책동과 그를 지원하는 외부 세력에 반대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중화민족’을 형성해 조국 통일을 유지하자고 했다. 이것이 21세기 초 최대의 관심사인 동시에 개혁개방 이후 기존의 일관된 정책 결정 방향임을 재차 확인했다. 또한 신세기의 상황 변화에 맞춘 정책의 추진을 통한 새로운 단계 즉 ‘중화민족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위대한 부흥’의 실현을 당의 합법성 및 정권의 영속성을 높이는 정치적 전략으로 설정했다.¹⁹⁾ 특히 후진타오가 이를 공산당 당장에 반영함으로써 민족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면서 이후의 정책은 모든 민족을 ‘융합’해 하나의 ‘중화민족’을 만들려는 노력으로 이어졌다.

IV. 시진핑 1기 4차 회의(2014) : ‘중국몽’과 ‘중화민족공동체’의 건설

후진타오 집권 2기 중국에서는 눈부신 경제적 발전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대내외적 상황이 불리하다는 인식이 여전했다. 이것은 이른바 국제적인 ‘3가지 악’이라고 규정한 민족 분열 세력, 종교 극단 세력, 폭력 테러 세력

데, 이를 통해 향후 중국의 민족 정책 방향을 정리했다(「我們黨關於民族問題的基本理論和基本政策是什麼」)

<http://www.wanyuan.gov.cn/xxgk-show-57836.html> (검색일 : 2024.05.30).

19) 전성홍·조영남, 2008.

의 영향과 침투가 나타났다고 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특히 2008년과 2009년에 일어난 라싸 3.14 사건과 우루무치 7.5 사건 등이 외부의 불온 세력과 연계된 테러라고 인식하고, 해외의 세력이 중국 내부에 직접 영향을 끼치려고 한 것에 강하게 대응했다. 또한 2007년 미국의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 세계를 휩쓴 경제 위기로 미국의 국제적 영향력이 약화하는 등 세계 경제 환경이 크게 변함에 따라 중국은 기존 민족 정책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고 새로운 방향을 정립하려고 했다.

2012년 11월 집권한 시진핑은 2013년 후진타오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발전시켜 “두 개의 100년”, 즉 중국공산당과 중화인민공화국이 2021년과 2049년까지 실현해야 할 “중국의 꿈(中國夢)”이라고 했다. 이것은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새로운 단계로서 접어들, 이른바 ‘신시대’라고 인식에 기초했다. 이를 위해 당의 중대 전략을 전개함과 동시에 민족 정책 방침을 재확인하고, 나아가 개혁, 빈곤퇴치, 엄정한 당치, 반부패, 청렴, 법치 등의 강력한 추진을 선언했다.²⁰⁾ 이런 맥락에서 제4차 민족공작회의가 2014년 9월 28일부터 29일까지 베이징에서 제6차 전국민족단결진보표창대회와 같이 열렸다. 회의 주제는 시진핑 집권 이후 제시된 발전 방향에 맞춰 “민족 대단결의 역량을 모아 위대한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해 같이 싸우자(凝聚民族大團結力量, 爲實現偉大中國夢而共同奮鬥)”로 설정되었다. 이것은 신시대의 민족문제, 민족사업의 특성과 규칙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아가 사상과 이해를 통일하며, 이런 목표와 과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자신감과 결의를 확고히 함으로써 민족 업무의 능력과 수준을 향상하자는 목표와 관련되었다.

먼저 시진핑은 건국 이후 65년에 걸쳐 추진된 민족사업의 성과가 정확하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이후에 사업을 더

20) 하야시 노조무, 이용빈 (역), 2019.

잘 꾸려나가기 위해 중국 특색의 민족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통일과 자치의 결합, 민족적 요인과 지역적 요인을 결합해 <헌법>과 <민족구역 자치법>의 규정을 잘 이행해 지방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민생을 개선하도록 했다. 이미 추진하던 ‘전면적인 사오강 사회 건설’을 완수하기 위해 각 민족 대중의 새로운 기대에 부응하고 개혁개방을 심화하며 많은 간부 대중의 적극성을 동원하기 위한 시장 활력과 사회 혁신에 대한 창조적 열정 역시 자극하려고 했다.

주요한 주제로서 먼저 중화민족과 각 민족의 관계를 다루었는데, 이를 대가족과 가족 구성원의 관계이며 각 민족의 관계가 대가족의 서로 다른 구성원 간의 관계라고 했다. 이런 관계를 바탕으로 민족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을 세 가지로 정했다. 즉 조국 통일과 국경의 공고화와 관련된 사업, 민족 단결과 사회 안정과 관련된 사업, 국가의 장기적 안정과 중화민족의 번영과 관련된 사업이었다. 이와 관련해 ‘민족 단결’이 각 민족 인민의 생명선으로 민족 사업을 완수할 수 있는 인심을 쟁취하는 중요한 토대라고 했다. 또한 민족 단결이 지방의 경제적 발전과 민생 개선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경제 발전이 제대로 되지 못한 민족지구 특히 국경 지역, 빈곤 지역, 생태 보호 구역에 대한 차별적 지원 정책을 통해 빈곤 탈출과 대외 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물질적 발전을 위해 민족지구의 특수한 장점을 발휘하기 위해 각 방면의 지원 강도를 높여 자기 발전 능력을 높이고 발전 잠재력을 방출해 사회 사업을 발전시켜 민생을 개선하는데 공정하고 정의로운 축진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한 민족지구의 실질적 발전을 위한 기반 시설의 확보, 빈곤퇴치 및 개발, 도시화 및 생태 건설을 강화해 발전 잠재력을 계속 방출하도록 했다. 또한 특색이 있고 유리한 산업을 민족지구 내에서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자기 발전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관광 사업 등을 민족 지역의 기동 산업으로 만들게 했다. 이를 위해 민족지구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한 토

지이용, 금융서비스, 자본시장 건설 등에 대한 차별적 지원을 했다. 이를 위한 투자 체제를 개혁하고 주변 지역과의 상호연계를 잘 수행하며 시장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연안과 연결해 상호보완적 이점, 상생 협력, 공동 발전 역시 실현하도록 했다. 이런 지원은 모든 민족이 잘살 수 있는 기본 공공서비스의 균등화 추진에 중점을 둔 민생의 개선과도 연결되었다.

이런 물질적 문제의 해결만 아니라 각종 잘못된 사상과 관념을 명확히 반대하고, 각 민족 간부와 대중이 옳고 그름을 인식해 국내외 적대세력의 침투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 역시 강화하게 했다. 민족 문화를 대대적으로 계승하고, 민족지구 발전을 위해 강력한 정신적 동력을 제공하며 생태 환경 보호를 강화하고 지속 발전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도 했다. 나아가 이런 정신적 문제의 해결을 바탕으로 중화민족의 결속을 강화하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문화적 정체성을 만들어내서 모든 민족이 공유할 수 있는 정신적 토대를 만들고자 했다. 이를 위해 애국주의적 교육을 강화해 사회주의 핵심 가치가 다음 세대에도 뿌리내리게 했다. 또한 정신적 가치의 확립을 위해 이중언어 교육, 대중 신앙, 소수민족 대표자와 지식인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했다. 이와 관련해 민족지구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중요한 것이 당 중앙의 지원과 노력임도 강조했다. 이것은 모두 당의 지도력을 확고하게 견지함으로써 어떤 세력도 민족 관계를 이간질하지 못하게 만들어 민족 단결과 조국 통일을 유지하기 위함이었다.

이런 민족 정책은 시진핑이 제시한 중국몽을 달성하기 위한 대외 발전 전략인 이른바 ‘일대일로(一帶一路, Belt and Road)’ 정책 즉 ‘신실크로드 전략’과도 긴밀하게 관련되었다.²¹⁾ 또한 이것은 G2의 위상을 갖게 된 중국이 세계 속에서 적극적 역할을 함으로써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한 민족 정책의 강력한 추진과 연결되었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 민족지구가 위치한

21) 이창주, 2017; 이승주, 2018.

변강지역이 중국의 대외 발전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강력한 통제와 지원을 통해 정책적 목적을 이루려고 했다.²²⁾ 이것은 각 민족의 단결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다민족국가가 하나로 융합된 ‘중화민족공동체의 건설’을 통해 시진핑이 제시한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과 발전 즉 ‘중국몽’의 실현과 바로 연결되었다. 이런 노력은 나 누어질 수 없는 중화민족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융합’에 초점을 맞춘 더욱 강력한 민족 정책의 추진이었다.

V. 시진핑 2기 5차 회의(2021) : ‘주뢰중화민족공동체의식’의 실천

시진핑은 2017년 10월 제19차 당대회를 통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실현의 전제로 삼은 “중화민족공동체 의식을 단단하게 녹여 만든다(鑄牢中華民族共同體意識)”라는²³⁾ 테제를 당장에 넣었다.²⁴⁾ 이것은 시진핑 집권 이후 민족 정책만 아니라 중국 발전의 가장 중요한 전제로, 2014년에 이미 이와 관련한 언급이 시작될 만큼 시진핑 집권 이후 민족 정책의 방향이었다.²⁵⁾ 또한 시진핑은 이를 바탕으로 2기 집권과 함께 이를 더 강하게 관철하려고 했다. 이것은 민족지구에 대한 강력한 ‘융합’ 노력으로, 현대화 내지는 개발을 명분으로 소수민족의 고유한 문화를 해체하고 공산당이 주

22) 허중국(2016), 246.

23) 王瑞萍 外, 2021; 詹小美, 2022; 李靜, 2023.

24)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2018, 298.

25) 2014년 5월 28일 시진핑이 “第2次中央新疆工作座談會”에서 한 연설 중에서 “在各民族中牢固樹立國家意識·公民意識·中華民族共同體意識”이라고 한 것이 “鑄牢中華民族共同體意識”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의 시작이었다.

도하는 ‘중화민족공동체’의 건설이었다. 이와 관련해 2021년 당 창당 100주년을 기념해 제5차 민족공작회의가 2021년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렸다.²⁶⁾ 회의 주제를 “중화민족공동체 의식을 단단하게 녹여 만들어, 신시대 당의 민족공작의 질 높은 발전을 추동하자(以鑄牢中華民族共同體意識爲主線, 推動新時代黨的民族工作高質量發展)”로 설정했다.

회의를 주도한 시진핑은 먼저 100년의 빛나는 당의 민족사업의 역정과 그의 역사적 성과를 전면적으로 회고하고 현재 직면한 새로운 정세를 분석했다.²⁷⁾ 민족사업이 이룬 가장 큰 성과는 민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국 특색의 올바른 길에 따랐기 때문이었다고 자랑했다. 동시에 자신이 집권한 이후에 구체화한 중화민족대가족, 중화민족공동체, 중화민족공동체 의식 등을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시대 변화에 따른 민족문제를 파악하고 민족사업을 잘 추진해 온 귀중한 경험을 축적해 당의 민족사업 강화와 개선에 관한 중요한 사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것이 바로 신시대 당의 민족 사업의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지도 사상, 전략 목표, 중점 임무, 정책 조치를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했다.²⁸⁾

이런 노력 모두가 ‘중화민족공동체 의식을 단단하게 녹여 만든다’라는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함이고,²⁹⁾ 각 민족의 근본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요구라고 했다. 이를 전제로 조국 통일과 민족 단결을 수호하기 위한 견고한 사상의 만리장성을 건설해 모든 민족이 공동으로 국가 안전과 사회

26) 盧成觀·代金平(2021), 69~78.

27) 習近平(2021).

28) 시진핑의 주요한 담화 내용은 12가지로 요약되는데, 이것은 이후 민족 정책의 방향을 설정했다(“中共國家民委黨組：以鑄牢中華民族共同體意識爲主線 推進新時代黨的民族工作高質量發展的綱領性文獻-深入學習貫徹習近平總書記在中央民族工作會議上的重要講話”

<https://www.neac.gov.cn/seac/xwzx/202111/1154677.shtml> (검색일 : 2024.05.30).

29) 郝亞明(2021), 22.

안정을 수호해야만 한다고 했다. 또 이를 통해 각종의 극단적이고 분열된 사상의 침투와 국가 전복 움직임에 효과적으로 저항하며, 각 민족의 더 나은 삶에 대한 동경을 계속 실현하고 각 민족의 근본이익을 실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이것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국가적 위험과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당과 국가의 번영과 장기적 안정을 위해 중요한 사상적 보장을 제공할 수 있는 토대였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평등, 단결, 상호원조, 조화로운 사회주의 민족 관계를 공고히 발전시키기 위해 중화민족에 대한 각 민족의 자각적 인식을 제고하고, 나아가 중화민족이 더 높은 정체성과 응집력을 가진 ‘운명공동체’가 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³⁰⁾

이것은 시진핑이 자신의 업적을 강조하면서 향후 ‘중화민족공동체의 건설’이 향후 100년간 중국이 나아갈 목표임을 분명히 설정한 것이었다. 이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추진 기지의 설정과 함께 사회 전반에 걸쳐 민족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벌여야 함도 강조했다. 이를 통해 이후 사회주의 현대화가 다음 단계 즉 향후 100년으로 나아가는 ‘신(발전)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했다. 이것이 바로 시진핑 자신과 당의 영도에 따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더 구체화하는 것이고, 이른바 ‘일대일로’라는 강력한 대외 확장정책을 통해 더 적극적으로 세계에 진출해 ‘인류 운명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토대라고 했다.³¹⁾ 특히 시진핑은 집권 초기부터 자신을 정책 추진의 전면에 드러내면서 자신의 영도로 중국이 발전했고, 개혁개방 이래 중국이 지향한 ‘중화민족공동체의 건설’이라는 장기적 목표 역시 이루어졌다고 자랑했다. 이를 바탕으로 시진핑은 2022년 10월 제20차 당대회를 통해 그동안의 관례를 깨고 결국 삼 연임을

30) 王延中(2018), 6.

31) 류젠전 외, 2024, 379~412.

했다. 이에 ‘중화민족공동체의 건설을 위한 의식을 단단하게 녹여 만든다’라는 시진핑의 강력한 의지와 그의 관철이 개혁개방 이래 계속 추진한 ‘일관된’ 민족 정책의 성과이며 향후 중국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것이었다고 자평했다.³²⁾

이와 달리 중국의 민족 정책은 ‘민족 단결’을 바탕으로 각 민족의 자결과 함께 문화 보존,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발전 즉 ‘현대화’를 얘기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 중국이 강력하게 부정하는 ‘대한족주의(大漢族主義)’적인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³³⁾ 경제 개발을 바탕으로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발전시켰다는 것 역시 결국 한족을 중심으로 한 체제의 확대 재생산한 측면을 부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런 측면이 더 강화되었다. 모든 민족의 ‘융합’을 통한 중화민족의 형성을 강조한 것 역시 기존 ‘동화론’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 그 예로 개별 민족의 문화를 현대화한다면서 강력한 통제를 통해 그 고유함을 완전히 부정한 것은 현재 신장 등지에서 현대적 직업 교육³⁴⁾ 내지는 ‘변강 프로젝트’를 통해 위구르를 비롯한 여러 소수민족에 대한 강력한 동화 노력에서도 확인된다.³⁵⁾ 그만큼 시진핑이 말한 민족 정책의 성공 즉 ‘중화민족공동체의 건설’은 민족의 완전한 ‘융합’ 즉 소수민족의 완전한 부정을 통한 내적 안정에 바탕을 둔 사회주의 체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빌미에 불과하다.

현재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민족 정책이 이런 성격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향후 중국 내의 소수민족에만 끝나지 않고 우리를 포함한 주변의 여러

32) 중국공산당의 ‘鑄牢中華民族共同體意識’과 관련된 공식적 선전 선동 활동은 ‘中華民族共同體’ 사이트 운영에서 확인할 수 있다.(<http://www.zhmzggt.com.cn>)

33) 주 28)에서 인용한 제5차 회의 담화에서 시진핑은 중화민족공동체를 강조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大漢族主義과 地域民族主義를 강하게 비판했다.

34) 주 8) 참조.

35) 박선영(2021), 298.

국가에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중국의 태도는 결국 주변 상대를 억압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을 강요하면서 이를 관철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이것은 현재 이른바 ‘전랑외교(戰狼外交)’라고 불리는 힘을 바탕으로 한 중국 중심의 국제 질서 재편 움직임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³⁶⁾ 따라서 이후에도 이런 변하지 않는 중국의 일관된 태도를 우려하면서 그의 민족 정책의 변화에 계속 관심을 두고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세심하게 주시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역시 필요할 것이다.

VI. 맺음말

중국은 개혁개방이 본격화된 이후 문화 대혁명의 오류를 반성하면서 덩샤오핑이 제시한 중국 특색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정책 추진과 함께 경제 개발의 토대가 되는 ‘민족 단결’을 강조했다. 또한 1990년대 초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 이후 어려운 처지에 놓였던 장쩌민은 최고의 관심사였던 경제 개발에 초점을 맞춘 민족 정책의 수립을 위해 제1차 민족공작회의(1992)를 개최해 경제 발전의 기초인 민족 단결에 맞춰 경제 개발을 강조했다. 이후 건국 50주년을 맞이해 그동안 성과를 정리하면서도 연안과 내지의 경제적 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서부 대개발 정책’ 추진과 관련해 제2차 회의(1999)가 열렸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테러와의 전쟁이 본격화된 대내외적 위기 속에서 집권한 후진타오는 중화민족의 형성에 기초한 신세기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3차 회의(2005)를 열었다. 이것은 전면적 샤오강 사회를 맞는 중국의 위대한 부흥 주체가 되는 중화민족을 중심으로 신세기 발전을

36) 박병광(2023), 2.

위한 강력한 민족 정책의 추진이었다.

또한 경제적 발전을 기초로 중국이 G2로 발돋움하면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신시대로의 발전을 바탕으로 시진핑은 새로운 100년의 발전을 꿈꾸었다. 이런 ‘중국몽’의 구현 즉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성취하기 위한 일대일로 정책의 추진을 통해 적극적인 대외 진출을 시도했다. 이에 맞춰 제4차 회의(2014)를 열어 ‘중화민족공동체의 형성’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추진했다. 이후 2021년 공산당 100주년을 맞아 새로운 100년의 역사적 지향을 설명하기 위해 ‘중화민족공동체 의식을 단단히 녹여 만든다’라는 테제를 바탕으로 제5차 회의가 열렸다. 이것은 중국의 새로운 100년 즉 ‘신(발전)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민족 정책의 방향 설정과 연결되었으며 세계로의 진출을 통한 ‘인류 운명공동체’ 형성과의 연결되었다. 이런 중화민족공동체의 건설은 개혁개방 이후 계속 추진된 민족 정책의 결과물로서 다민족국가 체제를 한 단계 발전시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단계적 노력의 결과였다. 따라서 이것은 일당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공산당의 일관된 정책 결정과 그의 추진을 통해 이런 성과물이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융합’을 강조한 한계 역시 잘 보여주었다.

이렇게 중국의 민족공작회의는 개혁개방 이후 5차례 개최되어 민족사업 성과를 정리하고 향후 그의 중요 방향을 결정했다. 이런 의미를 살피기 위해 그의 중요 내용을 계기적으로 정리함으로써 민족 정책의 흐름과 성격을 일목요연하게 이해함과 동시에 우리의 관심 역시 환기해 보고자 한다.



<그림 1> 역대 중앙민족공작회의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선전물

투고일: 2024.06.10. 심사완료일: 2024.06.21. 게재확정일: 2024.06.24.

| 참고문헌 |

〈한국어 문헌〉

- 공봉진, 2010, *중국 민족의 이해와 재해석*, 파주: 한국학술정보.
- 공봉진 외, 2014, *시진핑 시대의 중국몽 - 부강중국과 GI*, 파주: 한국학술정보.
- 류젠전 외, 구성철 외 (역), 2024, *중국식 현대화의 논리* 1·2, 부산: 산지니.
- 대런 버일러, 홍명교 (역), 2021, *신장 위구르 디스토피아 - 중국의 첨단기술 형벌 식민지에서 벌어지는 탄압과 착취의 기록*, 서울: 생각의힘.
- 박범중 외, 2020, *중국 발전과 변화! 건국 70년을 읽다*, 광명: 경진출판.
- 박범중 외, 2022, *중국공산당이 세운 신중국! 중화민족에 빠지다 - 중국공산당 100년(1921~2021)*, 광명: 경진출판.
- 박장배 외, 2014, *중국 변경 연구*,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 박장배 외, 2019a, *중국의 변경 연구 2 - 20세기 전반기 서남부의 국경과 변경*,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 박장배 외, 2019b, *중국의 변경 연구 3 - 신장 개발과 역사해석*,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 박장배 외, 2020, *중국의 변경 연구 4 - 북부변경 연구와 역사해석*,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 브루스 J. 디슨, 박우 (역), 2024, *당과 인민*, 파주: 사계절.
-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편역), 2018, *제19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보고*, 서울: 지식공작소.
- 송재윤, 2023, *슬픈 중국 : 대륙의 자유인들 1976-현재*, 서울: 까치.
- 이규태·구광범, 2011,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 변화와 정책적 함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대중국 종합연구 협동연구보고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이승주, 2018, *일대일로로 국제정착*, 서울: 명인문화사.
- 이시카와 요시히로, 강진아 (역), 2024, *중국공산당 그 100년 - 천두슈부터 시진핑까지 초거대 집권당의 여정과 그 속성*, 성남: 투비북스.
- 이창주, 2017, *일대일로로 모든 것*, 파주: 서해문집.

- 이희옥 외, 2023, *중국식 현대화와 시진핑 리더십 -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 대회 분석*, 서울: 책과함께.
- 이희옥·백승옥 외, 2021, *중국공산당 100년의 변천 - 혁명에서 '신시대'로*, 서울: 책과함께.
- 장윤미·이종화, 2024, *현대 중국 강의 - 중국의 변화와 세계의 흐름을 읽는다*,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 전성홍·조영남 (공편), 2008, *중국의 권력승계와 정책노선 - 17차 당대회 이후 중국의 진로*, 서울: 나남.
- 조정남, 2006, *현대중국의 민족 정책*, 파주: 한국학술정보.
- 케리 브라운, 권은하 (역), 2019, *시진핑의 중국몽 - 시진핑의 중국은 어디로 가는 가*, 서울: 시그마북스.
- 하야시 노조무, 이용빈 (역), 2019, *시진핑의 중국 - 100년의 꿈과 현실*, 서울: 한울.
- 김남이, 2012, “중국 서부대개발 정책과 소수민족 이익에 관한 연구 - 정책적 측면과 이익주체에 관한 분석”, *한국비교정보학보* (제16권 제2호).
- 김창구, 2021, “중국정부의 소수민족 정책”, *中國人文科學* (제78호).
- 김태식, 2012, “다민족 통일국가 중국의 소수민족 문제 연구 - 저항과 동화사례를 중심으로”, *인문논총(경남대학교)* (제30집).
- 박광득, 2004, “중국공산당의 소수민족정책 연구”, *대한정치학회보* (제12집 제1호).
- 박병광, 2000, “중국 소수민족 정책의 형성과 전개”, *國際政治論叢* (제40집 제4호).
- 박병광, 2023, “중국 시진핑 3기 ‘전랑외교’의 지속과 변화”, *이슈브리프(국가안보전략연구원)* (제417호).
- 박선영, 2021, “변강프로젝트의 ‘중국 만들기’와 패러독스”, *中國學* (제74호).
- 안치영, 2008, “중국의 민족문제 : 중화민족, 한족 그리고 소수민족”, *동아시아브리프* (제3권 제2호).
- 이진영, 2002,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 *민족연구* (제9호).
- 주용·이미정, 2018, “중국 소수민족 정책에 관한 연구동향 분석”, *인문사회21* (제9권 제6호).
- 허종국, 2006, “21세기 중국 민족정책의 특징과 전망: 서부대개발 위주로”, *사회*

과학연구(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제22집 제2호).

허종국, 2016, “‘일대일로’에 거는 중국의 기대: 신장문제 해결에 대한 경제적 접근법의 효용과 한계”, *동북아 문화연구* (제47집).

〈중국어 문헌〉

國家民族事務委員會政策研究室 (編), 1994, *中國共產黨主要領導人論民族問題*, 北京: 民族出版社.

國家民族事務委員會政策研究室 (編), 2015, *中央民族工作會議精神學習輔導讀本*, 北京: 民族出版社.

李靜, 2023, *中華民族共同體概論*, 北京: 商務印書館.

任一飛·周竟紅, 2003, *中華人民共和國民族關係史研究*, 瀋陽: 遼寧民族出版社.

王瑞萍·馬進·馬虎銀·喬娟, 2021, *鑄牢中華民族共同體意識若干重要問題研究*,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詹小美, 2022, *鑄牢中華民族共同體意識研究*, 人民出版社.

江澤民, 1999, “在中央民族工作會議暨國務院第三次全國民族團結進步表彰大會上的講話(1999年9月29日)”, *實踐* (1999-1).

盧成觀·代金平, 2021, “中國共產黨百年民族工作的理論主題與發展道路”, *廣西民族研究* (2021-4).

李瑞, 2002, “對江澤民關於民族問題內涵的理解 -紀念江澤民同志在第一次中央民族工作會議上的講話十周年”, *廣播電視大學學報* (2002-2).

民族團結雜誌社, 1993, “巨大的動力 喜人的形勢 -全國落實中央民族工作會議精神情況綜述”, *民族團結* (1993-6).

習近平, 2021, “關於《中共中央關於黨的百年奮鬥重大成就和歷史經驗的決議》的說明”, *人民日報* (2021-11-17 (02)).

嚴慶, 2021, “用高質量的民族工作踐行黨關於加強和改進民族工作的重要思想-學習中央民族工作會議精神”, *廣西民族研究* (2021-6).

王延中, 2018, “鑄牢中華民族共同體意識建設中華民族共同體”, *民族研究* (2018-1).

丁龍召, 2019, “中央民族工作會議：黨對民族工作加強領導的創新成果“, *內蒙古師範大學學報* (2019-4).

中共國家民委黨組 (編), 2021, “以鑄牢中華民族共同體意識為主線 推進新時代黨的民族工作高質量發展的綱領性文獻-深入學習貫徹習近平總書記在中央民族工作會議上的重要講話“, *中國民族* (2021-11).

陳勝錦, 2023, “中國共產黨民族工作的歷史進程與基本經驗“, *新疆大學學報* (2023-5).

郝亞明, 2021, “從五個時間節點來深刻把握中央民族工作會議精神“, *西北民族研究* (2021-4).

胡錦濤, 2005, “在中央民族工作會議暨國務院第四次全國民族團結進步表彰大會上的講話(2005年5月27日)“, *今日民族* (2005-6).

“中共國家民委黨組：以鑄牢中華民族共同體意識為主線 推進新時代黨的民族工作高質量發展的綱領性文獻-深入學習貫徹習近平總書記在中央民族工作會議上的重要講話”

(<https://www.neac.gov.cn/seac/xwzx/202111/1154677.shtml> 검색일 : 2024.05.30).

“我們黨關於民族問題的基本理論和基本政策是什麼?”

(<http://www.wanyuan.gov.cn/xxgk-show-57836.html> 검색일 : 2024.05.30).

“中華民族共同體”

(<http://www.zhmzgtt.com.cn> 검색일 : 2024.05.30.).

